



2020.08

여름

제25호

날은 **홍범도장군**

www.hongbumdo.com | 발행인 우원식 | 편집인 홍순계 | 창간 2014년 8월 15일

“승리 그리고 승리” 봉오동전투전승 100주년 기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Gen. HongBumDo Memorial Society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TEL : 02)734-8851-2 FAX: 02)722-0251 www.hongbumdo.com





2020.08 여름호

2	100주년 기념식	봉오동전투 승전 100주년 기념식 기념사 우원식 이사장
3		문재인 대통령 SNS, 정세균 총리 축하
4		정의의 출발은 정명(正名)…홍범도를 다시 생각한다 이강윤 언론인
7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에 다녀와서 정희용 도서출판 바들비 대표
8	유해봉환	유해봉환 어떻게 되어나
10		독립영웅기념관을 찾아서 제2편 윤동주문학관 정이숙 카피라이터
14		독립영웅 기념관 해외 사례 제1편 베트남 호치민박물관 김도형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16		의병, 독립군, 광복군에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박석봉 육군사관학교 교수
18	홍범도이야기	소설 '나는 홍범도' 출간
21		Book Concert <나는 홍범도> 우원식 이사장 기념사
22		빈농출신의 독립운동명가: 독립운동 제단에 묵숨 바친 홍범도 장군의 부인과 두 아들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27		독후감 백송고 서은교
28		연재 (3) 항일무장투쟁의 영웅 홍범도장군 공희정 작가
29	회원소식	회원투고1 '홍범도 장군이 활동한 러시아 연해주' 김경호 이사
30		회원투고 2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을 다녀와서' 김우진 이사
31		신입이사 소개 및 광고
32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회비 입금현황, 임원명단

봉오동전투 승전 100주년 기념식 기념사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면 온 백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고, 항일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독립전쟁, 봉오동전투 100년인 오늘, 홍범도 장군의 외침이 다시 들리는 듯 합니다.

100년 전인 1920년은 독립전쟁의 해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독립신문>1면에 독립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밝혔습니다. 3.1운동으로 자각한 청년들은 독립군에 투신했고, 만주와 간도 곳곳에 터 잡은 독립군 부대들이 바로 독립전쟁의 주역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전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1920년에만 독립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무려 1,651회나 펼쳐졌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또한 독립전쟁에서 큰 활약을 펼쳤고, 다른 독립군단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국내 진공작전을 꾸준히 전개했습니다.

독립전쟁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오른 그 해 6월, 홍범도 장군이 이끈 독립군 연합부대는 일본군을 상대로 독립전쟁 최초 전면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독립전쟁 1차 대승리’라고 불리는 봉오동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0월의 청산리 전투에서 또 다시 일본군을 상대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1920년 독립전쟁에서 이뤄낸 승리는 독립운동의 역사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지배로 고통 받던 민족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만주지역 독립군의 저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후 만주는 독립운동의 최전선이 되었으며, 만주 독립군의 청년들은 1940년 한국광복군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는 단순히 개별 전투의 승리가 아닙니다. 3.1운동으로부터 시작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거쳐 진행되어오던 연속된 투쟁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독립전쟁의 승리이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희망의 승리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역사는 평범함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입니다. 한 때 머슴으로, 나팔수와 식객승을 전전했던 평민 출신 의병장이자, 의병장 출신 독립군 총사령관인 홍범도는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독립운동은 이렇게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평범함 속 용기들이 하나 둘 모여 위대한 희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대동 화합의 정신으로 억압에 맞서 승리한 독립전쟁의 정신이 지난 100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이 되었듯,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의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가 가고 독립전쟁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독립전쟁 100주년을 새롭게 정리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공유하고 기억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독립전쟁 1회전’이라고 불리는 봉오동전투, 그리고 청산리전투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함께,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군들의 삶을 재조명해야 합니다. 독립전쟁 100주년을 한 번의 기념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추후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과 함께 봉환하여 안장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기념사업회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려인 사회 그리고 우리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맡아 원활하게 유해가 봉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유해 봉환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일깨우고 독립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100년 전 함께 만들어 낸 독립전쟁의 희망의 승리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기념사업회가 작은 밑일이 되어 독립운동가의 정신과 뜻을 기리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100년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갑시다.

2020.6 이사장

우원식



문재인 대통령 SNS

“독립전쟁,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힘을 생각합니다

100년 전 오늘, 홍범도 장군과 최진동 장군이 이끈 우리 독립군이 중국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 정규군 ‘월강추격대’와 독립투쟁 최초의 전면전을 벌여 빛나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임시정부가 ‘독립전쟁의 해’를 선포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일궈낸 무장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승리였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승리로 독립운동가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고통받던 우리 민족은 자주독립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구한말 의병뿐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 등 평범한 백성들로 구성된 독립군의 승리였기에 겨레의 사기는 더 높이 고양되었습니다. 너도나도 가난한 살림에 의연금을 보태 독립군의 무기구입을 도왔고, 식량과 의복을 비롯한 보급품을 마련하는 데 나섰습니다.

독립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국가의 책무임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미래를 열어갈 힘을 주는 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지만, 정부는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올 것입니다.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 코로나 국난극복의 원동력도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국민들은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지켰고,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냈습니다.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승리와 희망의 역사를 만든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힘을 가슴에 새깁니다.

2020년 6월 7일

대통령 문재인



정세균 국무총리 축사

우리 군은 100년 전 독립군의 후예들이다.

일제의 3.1 만세운동 탄압도 독립을 향한 우리 겨레의 의지와 집념을 꺾지는 못했고, 100년 전 오늘 독립군 연합부대와 일본 정규군 사이에 처음으로 대규모 전투가 벌어져 독립군이 대승을 거뒀다.

봉오동 전투는 평범한 이들의 싸움이었다.

선조들은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군사훈련을 해 어제의 농부가 오늘의 독립군이 돼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다. 평범한 백성들이 써 내려간 승리의 역사였다

선열들의 독립정신이 6.25 전쟁 후 나라를 일으키는 힘이 되고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뿌리가 됐다.

2016년의 촛불혁명도 백성이 나라를 되찾고 바로 세우겠다는 독립정신의 표출이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염원과 희생 위에 서 있다

정부는 1920년에 시작된 무장독립투쟁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의 역사로 기록하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과 효창공원의 독립기념공간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후세에 전하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홍범도 장군께서는 생전에 ‘국토를 회복하여 자손만대에 행복을 주는 것이 독립군의 목적이요, 민족을 위하는 본의’라고 말씀하셨다.

수많은 독립 선열들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다.

독립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국가의 책무임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미래를 열어갈 힘을 주는 일이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와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 🇰🇷

(축사 주요 내용 요약)

정의의 출발은 정명(正名)

...

홍범도를 다시 생각한다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 소고(小考)

#1.

긴장 속에 내내 조마조마하며, 객석에 앉아있는 것 만으로도 미안해 좌불안석이었던 연극이 있다. 연극이라는 것을 처음 본 대학교 1학년(1981년) 이후, 그리고 신문사 문화부 기자로 일할 때 수 백편의 연극을 봐왔지만, 긴장하고 미안해하며 본 연극은 작년 홍범도기념사업회(이사장: 민주당 우원식 의원) 초청으로 서울 대학로에서 특별공연된 <날으는 홍범도 장군>이 처음이었다.

홍범도 장군 탄생 150주년을 기려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 연극팀이 홍 장군의 조국인 한국에서 특별무대를 올린 건데, 내가 긴장한 까닭은 배우들의 한국어 대사였다. 고려인 3,4세로 구성된 배우들은 100년 넘는 세월을 이국 만리에서 사느라 한국어보다는 러시아어가 훨씬 익숙하리라는 것은 당연지사. 한국어로 그저 몇 마디 인터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100분 간 한국어 대사를 정확히 전달해야 하니 그들의 노력이 어땠을지는 불문가지다.

독특한 억양의 까레이스키 한국어 발음으로 대사 하나하나를 이어가는 동안, 객석의 모든 이들 역시 조마조마했을 게고, 염치없어서 미안해했을 것이다. “저러다 대사가 꼬이거나 틀리면 저들이 혹시 무안해하지는 않을까...”. 관객들은 시종 안타까움과 조마조마였다. 홍 장군의 조국에서 갖는 공연이니 배우들 역시 객석 만큼이나 긴장했을 것이다.

두 아들과 아내까지 일본군의 고문과 유격투쟁으로 희생됐지만 조선독립의 대의를 위해 미동도 하지 않았던 홍 장군. ‘조선의 체 게바라’ 라고 칭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홍 장군. 그의 지고지탄했던 투쟁사를, 한반도에서 펼쳐진 정치적 이유로 <독립운동사>에서 조차 소략하게 기술된, 그래서 장군의 혁혁한 투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대한 미안함이 겹쳐, 공연 내내 한 순간도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댈 수 없었다.

홍 장군이 구술한 <홍범도 일지>를 바탕으로 극화된 이 연극은 홍 장군 타계 1년 전인 1942년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서 초연됐다. 연극을 본 장군은 “나를 너무 추켜세웠다”며 계면쩍어했다고 한다. 그 답다.

#2.

부모를 일찍 여윈 탓에 고아나 다름없었던 홍범도는 9세 때부터 머슴살이와 나팔수 소년병, 제지공장 노동자, 도피를 위한 승려 생활, 강원도 먹패장골 산포수 등 살아남기 위해 안 한 일이 없었다. 27세 되던 1895년, 청년 홍범도는 동갑내기 친구와 “이 총으로 짐승이 아닌 왜놈들을 잡아야겠다.”며 구식 화승총 한 자루를 들고 거병을 결의했다. 1차 반일의병의 시작이다.

범도는 포수 생활에서 갈고닦은 사격 솜씨로 일본군을 백발백중 저격하면서 곧 ‘조선 최고의 스나이퍼’로 이름을 날리고, 각지의 두메산골 포수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강원도에서부터 충청도, 함경도, 만주를 안방처럼 넘나들며 엄청난 기동력의 게릴라전을 펼쳐 연전연승을 거두는 그를 조선 인민들은 ‘축지범을 쏜다’,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생각했고 ‘날으는 홍대장’이라는 노래까지 지어 불렀다고 한다. (도서출판 <바들비>가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전투 대승 100주년을 맞아 최근 발간한 역사소설 <나는 홍범도>에서 일부 발췌. 책 제목 ‘나는 홍범도’의 ‘나는’은, ‘나는 아무개입니다’의 ‘나는’이 아니라, 날아다닌다는 뜻의 ‘나는’이다.)

#3.

홍 장군의 봉오동 전투(1920.6.7)는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한 대한독립군의 첫 대승이었고, 홍 장군은 4개월 뒤 북로군정서의 김좌진, 이범석 장군 등과 함께 청산리 대첩을 이끌며 정점을 이뤘다.

홍 장군은 모두 37회에 걸쳐 국내 진공을 단행했고, 건디다 못한 일본군은 ‘월강 추격대’를 조직, 독립군을 소탕하려다 장군의 유인-매복 작전에 걸려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퇴했다. 임시정부는 봉오동 전투의 낭보를 접하고 “항일전쟁 제1의 승리”라고 격찬했다.

독립운동사 대첩의 상징처럼 된 청산리전투 역시 홍 장군의 활약이 김좌진 장군 등과 앞뒤를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으나, 여지껏의 우리 역사는 그 점을 간단히 기술한다. 청산리 전투의 주도적 인물로 널리 알려진 김좌진과 이범석이 우파 계열이었던 탓에 중국 내 한인 사회에서는 홍 장군을 더 높게 친다. 거꾸로 국내에선 홍 장군이 소련측과 전략적 제휴를 했고, 소련공산당에

가입했다는 점 등을 들어 1980년대 후반까지도 아예 홍범도에 관한 기술이 없거나, “독립운동을 하다 카자흐스탄에서 쓸쓸히 사망했다” 정도로만 언급되었다.

청산리전투는 김좌진과 홍범도 부대의 공로가 반반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며, 특히 일본군끼리 서로 뒤엎겨 싸우게 한 영민한 작전은 홍 장군이 주도했다.

정의의 출발점은 정명(正名)이라 했던가. 홍 장군의 활약과 생애가 있었던 그대로 기술돼, 후세들이 그를 제대로 추념하고 마땅한 예우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

#4.

만년의 홍 장군은 구 소련의 고려인 강제이주정책으로, 그가 훨훨 날아다니던 연해주지역에서 수 천 km 떨어진 동토 카자흐스탄으로 쫓기듯 옮겨갔다. 고려극장 수위와 공장 노동자로 지내다, 1943년 꿈에도 그리던 조선독립을 불과 2년 앞두고 75세의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일부 독립운동가들처럼 이름이나 명예를 탐하지 않았으며,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와 정치활동 같은 걸 하지도 않았다. 그의 일생이 그러했듯, 생의 마지막 단락 역시 수 많은 조선인들과 고락을 같이 하다가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좌파 무장투쟁가들과의 전략적 제휴와 소련공산당 입당 경력, 구 소련 영토인 연해주를 근거지로 활동한 탓에 대한민국 보수정권들은 그를 가급적 외면하고 싶어했다. 독립투사로서의 그의 숭고한 생은 너무도 늦게 조명됐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고, 현 정부 출범 뒤인 2018년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그의 흉상을 세우고, 명예 졸업장을 바쳤다.

#5.

얼마 전 정치권의 안 모 씨가 “홍범도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면 백선엽 장군도 영웅”이라며 백 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을 촉구했다. “백 장군의 공과 과를 나눠 살피자”는 주장이었겠지만, 비교를 해도 유분수지, 홍 장군의 일생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그런 물지각한 비교를 하나... 참담했다. 백선엽은 조선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만주 괴뢰국의 조선 출신 군인이었다. 안 모 씨의 말을 고려인들이 들었다면 그들 속은 어땠을까. 부끄럽기 짝이 없다.

#6.

지난 ‘제 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 묻혀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와, “장군의 출생지인 평양으로 모셔야 한다”는 북한측 주장도 제기되는 등, 현재 유해봉환은 잠정 연기 상태이다. 남북이 다룰 것 없이 공평하게 모시는 게 당연한 예의이지 않을까. 장군 유해봉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

#7.

지난 6월 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봉오동전투 대승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정세균 총리, 정경두 국방장관, 우원식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원웅 광복회장 등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으니 정부 공식행사로서도 손색없었다. 코로나19 사태에 폭염까지 겹쳤지만 참석자들 모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의 일생 앞에 숙연했다. 그에게 바치는 예의치고는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시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각계에서 촛불정신을 구체화하는 움직임이 있기에, 그렇게라도 예의를 차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기념식의 메인 테마는 ‘승리, 그리고 승리’였다. 홍 장군의 생을 한 마디로 응축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봉오동전투는 독립전쟁에서 첫 대승을 거둔 빛나는 역사”라며, “100년 전 우리의 힘만으로 이뤄낸 승리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도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이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적절한 기념사이자, 뒤늦게나마 우리 역사의 결락 부분을 제대로 찾아 바로잡자는 연설이어서 호소력이 컸다.

홍범도 장군을 깊이 추모하며, 장삼이사의 알량한 존경심을 뒤늦게나마 기쁘게 바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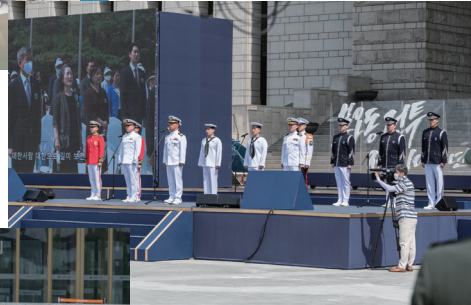
이강윤 언론인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에 다녀와서

정희용 도서출판 바들비 대표



기념식장



국민의례



기념사



기념식장



독립군



뮤지컬



의장대



#8.
마지막으로, 공유상 선배가 봉오동전투 대승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시를 덧붙인다.

〈봉오동전투 100주년에〉
- 공유상 -

“님들은 상놈이었소.
개 돼지처럼 바닥을 기며
이놈 저놈에게 뽕 뜯기며 살던 천한 놈이었소.

그 알량한 조국마저 빼앗기고
잘 살던 놈들은 다 도망가고
강한 외국놈들한테 빌붙어 살 때
님들은 무식하게 강한 외국 놈들하고 맞짱을 뒀소.

다른 나라 혁명에서 남은 체코제 장총을 들고
최초의 군대식 편제로 님들은 쪽바리들을 작살내부렀소.

그 후...100년이 지났어요.
어엿한 국군 의장대가 당신들을 기릴 때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그토록 바랬지만
독립된 조국은 당신들을 이제껏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먼 카자흐스탄에서 그나마 유해라도 모신다고 하니

홍범도 장군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삶을 살라 하시면
비겁한 인생은 두려워 주저하겠지만

당신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우리가 있기에
남은 삶을 곳곳하게 살겠습니다.”

6월 7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보훈 사업이나 독립운동과 특별한 관련이 없었던 나에게 이날 기념식 초청장이 온 것은 내가 일하는 출판사가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연 때문이었다. 작품 마무리에 한참인 소설가 송은일 선생이 먼저 오셨기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행사를 참관했다.

"전에는 이런 행사나 기념식이 그냥 의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100년 전을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네요."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송은일 선생도 웃으며 답한다.
"그러게요. 현충일이나 광복절도 무감하게 지날 때가 종종 있는데, 여기 오니 홍범도 장군이 우리와 그리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었음을 새삼 실감합니다."
6월 초엽의 햇볕이 제법 뜨거워 우리는 주최측에서 준비해 준 종이 모자를 쓰고 기념식을 참관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봉오동 전투는 평범한 이들의 싸움이었다. 선조들은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군사훈련을 해 '어제의 농부가 오늘의 독립군'이 돼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다."고 말했다. 송은일 작가와 나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공감을 표시했다. 소설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봉오동전투는 단지 독립군 부대만의 전투가 아니었다.
나라를 잃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간도와 연해주, 만주 지역에 자리잡은 선조들은 어떤 도움도 없이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 생업을 일구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곳곳에 학교를 지어 후대를 가르쳤고 마을 주변의 깊숙한 산자락에는 밀영을 만들어 무기를 감춰두고 일제와 싸우기 위한 군사훈련을 했다.
그들은 독립군의 일원이거나 남편 또는 자식을 독립군에 입대시켰고, 독립군의 눈과 귀가 되어 정찰을 맡았으며, 애면글면 모은 돈으로 전투를 위한 총과 총탄을 사들였다.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가 치러질 때 아낙들은 주먹밥을 만들어 총탄이 날아다니는 전투 현장에서 일본군대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독립군 병사들의 입에 밥을 넣어주었다.

정 총리는 "선열들의 독립정신이 6.25 전쟁 후 나라를 일으키는 힘이 되고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부리가 됐다. 2016년의 촛불혁명도 백성이 나라를 되찾고 바로 세우겠다는 독립정신의 표출이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염원과 희생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는데 정말 올바른고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국민들이 그 시절 독립군과 그들을 한몸처럼 지원한 선조들의 가열찬 투쟁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선조들은 을미 의병부터 해방까지 50년이 넘도록 총을 놓고 않고 끊임없이 일제에 대항해 전쟁을 치렀다.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유명하다지만 그들이 활동한 시기는 불과 3년 정도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제국주의가 전세계에 수많은 식민 침탈과 지배를 자행하는 동안 이렇게 견결하게 싸워온 경우는 사실 세계사적으로 흔치 않다.

참혹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의 얼을 세운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좀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잘 알고 일상에서 함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상념에 젖어드는 사이 행사는 마무리 식순으로 접어들고 인기 락 가수 하현우 씨가 나와 축하 공연을 했다. 축하곡명은 '돌덩이'. 드라마 ost로 이미 잘 알려진 곡이라는데 나는 이날 현장에서 처음 접했다. 하현우의 카랑카랑하고 힘찬 목소리에 얹어진 가사도 승전 100주년 행사에 잘 어울리는 듯했다.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같잖은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지켜봐
절대 꿈쩍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를 뿐야
난 말야 똑똑히 봐
썩일수록 깨질수록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우리의 100년 전 항일 전쟁이 이처럼 힘차고 즐거운 노래로 만들어져야 한다. 시로도 쓰이고, 소설로도 만들어져 국민들이 그 작품을 즐기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한다.
봉오동전투를 역사책 속에만 고이 접어두어서는 안 된다.
락 음악으로, 일상의 예술로, 시인과 소설가들의 창작물로 늘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승전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한 출판쟁이는 이런 생각을 하며 기념식장을 나섰다.

장군의 유해봉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카자흐스탄에 묻힌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두고 북한 선전매체가 고향인 평양에 안치해야 한다며 탄지를 걸고 나섰다.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3일 '조상 전례의 풍습을 무시한 반인륜적 행위' 제목의 논평을 내고 "유해가 그의 고향인 평양에 안치돼야 한다는 것은 복과 남은 물론 해외의 온 겨레가 한결같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자흐스탄 정부도 북과 남이 통일된 이후에 홍범도의 유해를 넘겨 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남조선 당국의 책동은 조상 전례 흡습도 국제 관례도 무시한 반인륜적 행위이며 또 하나의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언론보도 중에서〉

기념사업회 성명서 (전문)

‘북한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적극 협조 하길 바란다’

카자흐스탄에 묻힌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두고 북한 대외 선전매체가 고향인 평양에 안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봉환 추진을 반인륜적 행위이자 도발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은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당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요청했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협조를 받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상반기에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과 함께 국내에 봉환하여 안장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어 추후 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유족과 고려인 사회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것이다. 북한이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난하지만, 인륜을 말할 것 같으면 유족의 뜻이 가장 먼저다. 홍범도 장군의 외손녀 김알라 여사는 지난해 국회에서 개최된 <봉오동전투 전승 99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외할아버지를 한국에 모시는 게 마지막 꿈”이라고 의견을 전한 바 있다.

또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크즐오르다 주 정부, 장군의 묘역을 보살펴오신 고려인 동포들의 협조를 구했으며 봉환 행사를 공동으로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고려인 사회의 진정성을 깎아내린 북한의 연사를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홍범도 장군은 특정 가문이나 지역을 초월하여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고 추모한 독립전쟁의 최고의 영웅으로, 특정 지역에 모셔야 된다는 전례의 풍습을 초월한 민족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홍범도 장군은 어느 곳에 모시는 자주독립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분의 높은 뜻과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일이다.



타지에 묻힌 독립운동가의 유해를 하루 빨리 고국으로 모셔오는 것은 후손의 당연한 책무이다. 남과 북이 통일된 이후에 훗날도 장군의 유해를 넘겨받기로 한 약속을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1992년 카자흐스탄과 수교이후, 현지 교려인 동포들과 함께 묘지를 정비하고 관리하여 왔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주축이 되어 매년 홍범도 장군의 탄생과 순국을 기념하는 행사는 물론,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 등 장군의 업적을 알리고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국민적 관심을 드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홍북도 장군의 유해가 80년 가까이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역만리에서 쓸쓸히 잠들어 있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많은 난관을 딛고 유해 봉환이 결정된 것인 만큼,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다. 북한도 홍북도 장군을 조국에 모시는 일에 적극 협조하길 바라며, 앞으로 예정된 봉환 행사에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2020.06.23.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illegible]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추진 의지를 밝혔던 홍병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코로나19 확산과 현지 반발로 좌초 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목표였던 8월 내 봉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중략)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있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오는 8월께 봉환식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발목을 잡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장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8월 봉환이 어렵게 됐다”며 “국내에서 준비는 모두 마쳤지만, 카자흐로 이동했을 때 관련 인원이 모두 자가격리를 거쳐야 하는 상황 등이 겹치며 아직 후속 봉환 일자를 논의하지도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 6월 24일자 보도 중에서

국가간 외교관계 재개되면
올해안에 유해봉환도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가 변수)

7월 22일 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과 운영위원회 임원들과의 미팅에서 청와대 담당 비서관은 올해 내에도 유해봉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8월부터 각국 간의 외교 관계가 재개되면 자연스레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 일정도 잡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장군의 유해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고국으로 모셔올 계획이었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카자흐스탄 내 코로나 환자 발생 수가 급증 상태라(1일 1,500명
내외)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09년 윤동주문학관 모습/아틀리에 리움



현재 윤동주문학관 모습



제1전시실

수도 가압장에서 영혼의 가압장으로!

- 윤동주문학관에서 마르지 않는 우물을 만나다 -

정이숙 카피라이터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아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별 헤는 밤 일부)

시인 윤동주를 생각하면 사랑, 추억, 쓸쓸함, 별 같은 낭만적인 단어들이 떠오른다. 문학을 꿈꾸던 여고생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아깝고 아깝게 요절한 시인 동주. 겨우 만 스물 일곱을 채우고 세상을 떠난 윤동주 시인을 만나러 종로구
청운동 윤동주문학관에 가던 날에는 비가 내렸다.

종로구는 1969년 세워진 청운아파트 229가구를 2005년 철거한 뒤 청운공원을 조성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아파트를 철거한 자리 옆에 남아 있던 90㎡ 규모의 청운 수도 가압장과 물탱크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서 윤동주문학관을
세웠다. 가압장은 인왕산 자락 고지대에 수도물을 공급하려고 펌프로 압력을 가하던 곳이다. 윤동주문학관은 홈페이지
소개글에서, 느껴지는 물살에 압력을 가해 다시 힘차게 흐르도록 돕는 가압장처럼, 삶에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 영혼에
든든한 위로와 다독임을 주는 '영혼의 가압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화상 일부)

윤동주 문학관 3개의 전시실 중 첫 번째인 제1전시실에 들어서니 유리 상자 속에 나무 우물이 눈에 띄었다. 용정에
있는 윤동주 생가에서 가져온 우물 목관이라고 한다. 그의 시 '자화상'에 나오는 우물인 것처럼 보였다. 윤동주문학관의
컨셉트와 전시 방향을 말해주는 전시관의 핵심 콘텐츠라는 것이 문학관 측의 설명이다. 제1전시실에는 우물 외에 9개의
전시대에 시인의 인생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한 사진자료와 친필 원고 영인본이 전시되어 있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윤동주문학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서시 일부)

열린 우물이라고 이름 지어진 제2전시실은 천장이 없는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네모난 마당이었다. 버려져 있던 물탱크 2개 중 하나인데 상태가 안 좋아 윗부분을 개방하여 중정을 만들었다고 한다. 윤동주의 시 '자화상'에 등장하는 우물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데, 물탱크에 저장되었던 물의 흔적이 벽체에 그대로 남아있어 시간과 기억이 쌓인 퇴적층을 보는 느낌이 든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새로운 길 일부)

제2전시실의 중정을 걸어 제3전시실에 들어서자 어둠이 물러들었다. 밖에 있다 안으로 들어선 탓에 시각이 어둠에 적응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창문 하나 없는 콘크리트 공간은 마치 감옥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시인이 옥사한 후쿠오카 형무소 독방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한다. 제3전시실도 역시 물탱크였던 곳이다. 그 곳에 있는 동그란 나무 의자에 앉아 기다리니 콘크리트 벽을 화면 삼아 윤동주 시인의 일생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다.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 마침 전시관의 문 닫을 시간이었다. 문을 닫은 모습도 인상적이니 꼭 보고 가라는 안내에 밖에 서서 기다렸다. 특이하게도 미닫이문이 나와서 전시관의 정면을 가렸다. 그 미닫이문이 다 닫히니 문의 벽에 시인의 얼굴과 '새로운 길'이라는 시가 벽화처럼 나타났다. 시인의 장례식에서 낭독되었다는 시다.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 문과 재학시절, 종로구 누상동에 있는 소설가 김송(1909~1988)의 집에서 문우(文友) 정병욱과 함께 하숙 하면서 종중 인왕산에 올라 자연 속에서 시정을 다듬었다고 전해진다. 〈별 헤는 밤〉, 〈자화상〉, 〈또 다른 고향〉 등 시인의 대표작들이 바로 이 시기에 탄생했다. 그의 발길이 자주 닿았을 장소에 있는, 더이상 쓰이지는 않지만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는 공간이 허물어지지 않고 시인의 공간이 된 것이 반갑고 고맙다. 문학관 뒤로는 '시인의 언덕'이라고 이름 붙여진 산책로가 펼쳐진다. 천천히 걸으며 문학관 안에서 만났던 감동을 음미하기에 좋은 길이다.

길을 걸으며 나의 스물 일곱을 돌이켜 본다. 스물 일곱 근처를 지나고 있는 내 아이들과, 회사에 있는 그 또래의 청년들을 떠올린다. 아직 숨털도 다 가지지 않은 맑고 밝은 스물 일곱이다. 내 눈에는 여전히 어리고 안쓰러운 나이다. 윤동주는 그 나이에 죽었다. 아니 일제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가가 뜨거워진다. 잠깐 그쳤던 비가 후두둑 다시, 떨어졌다. ☔

〈윤동주문학관 관람안내〉

- 전시실 구성
- 시인채(제1전시실): 시인의 사진자료, 친필 원고 영인본 전시.
 - 열린 우물(제2전시실): 지붕 없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중정(中庭).
 - 닫힌 우물(제3전시실): 침묵하고 사색하는 공간. 시인에 대한 영상 상영.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 119(청운동 3-100) 대표전화: 02-2148-4175

관람시간: 10:00~18:00 입장마감 (17:40)

휴관일: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설날. 추석

관람료: 무료

(종로문화재단에서 윤동주문학관 사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사랑받는 '호 아저씨'

김도형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의 바딘 광장에 베트남 최고의 민족 지도자인 호치민(Ho Chi Minh, 1890~1969)을 기리는 '호치민 박물관(Ho Chi Minh Museum)'이 있다. 오늘날도 호치민이 베트남 민중들의 절대적인 신뢰, 친근감,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가 외세의 침략과 압제로부터 베트남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투쟁을 하였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이다.

호치민의 본명은 응우옌신평(Nguyễn Sinh Cung)이며, 자(字)는 팻 타인(Tát Thành)이다. 베트남의 국부이며, '호 아저씨(Bác Hồ)'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불리며 평생 200여 개 이상의 가명을 사용하였다. 호치민은 1945년 베트남 정부의 주석이 된 이후에도, 하노이의 바딘 광장 근처 주석부 구내에 있는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집무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호 아저씨'라고 불리며 학교나 공장, 집단농장을 방문하여 사회주의나 민족통일의 대의를 알렸다. 그러다가 1969년 9월 2일 오전 9시 45분 베트남 독립 24주년을 기념하는 날 일흔아홉 살에 사망하였고, 장례식은 9월 8일 하노이의 바딘 광장에서 열렸다. 그는 마지막 유언장에 자신의 유해를 화장한 다음 조국의 북부·중부·남부에 나누어 뿌리고 장소를 밝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는 그가 평생을 조국을 위해 바쳐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나 호치민의 후계자들인 베트남 노동당(1976년 '베트남 공산당'으로 바꿈) 정치국에서는 1969년 11월 29일 미래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 방부 처리한 호치민 시신을 전시할 묘소 건설을 공식 승인하였다. 그의 묘소는 현대적 양식으로 베트남 혁명의 최고 성지 가운데 하나인 하노이 바딘 광장으로 정하였다. 이곳은 주석부와 호치민이 여생을 마친 작은 집 바로 옆이기도 하였다. 1975년 8월 29일 호치민 묘소는 마침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호치민 묘소의 앞 면은 회색 대리석으로 덮었고,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은 다낭 남쪽의 대리석 산에서 캐온 것이었다. 모양은 원시의 진흙으로부터 떠오르는 연꽃을 닮았으며, 그런 면에서 근처 공원에 있는 11세기의 불교 탑과 잘 어울렸다. 묘소 안에 안치된 호치민의 시신은 중국식 옷차림에 두 손을 모은 채 누워 있는 모습으로,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레닌 묘소를 연상시켰다.

호치민은 베트남 민족의 독립과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였다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조국을 떠나 방랑하다가 1917년 프랑스 파리에 정착하여 파리강화회의의 한 가운데서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베트남의 독립과 민족자결을 요구하였다. 1919년 6월 18일 '안남애국자연합'의 명의로, 〈안남 민족의 요구(Revendications des Peuple Annamite)〉 청원서를 파리평화회의의 대표단에서 보내는 독립투쟁을 전개하였다. 그가 당시 사용하였던 응우옌 아이꾸옥(Nguyễn Ái Quốc, 阮愛國)이라는 이름은 베트남 동포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호치민이 베트남 민족의 독립과 민족자결을 요구할 당시, 우리 민족도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세계만방에 선포하고,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의 한국인 대표로 파견하여 열강들을 상대로 독립 외교활동을 펼쳤다. 프랑스 역상 프로방스의 국립해외문서보관소(ANOM, Archives nationales d'outre-mer)에 소장된 자료에 의하면, 호치민은 파리에 있었던 김규식을 비롯한 한국대표단과 만났다는 것이 확인된다. 1919년 12월 어느 날 호치민은 사토영 38번지에 있는 파리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가고, 12월 23일에는 조소앙의 숙소인 아테네(Athènes) 호텔로 찾아가 그를 만났다. 1920년 1월 8일 호치민은 파리의 지리학회 강당에서 열린 '극동에서 위협받는 평화'라는 회의에 참석해 파리위원부 서기장 황기환과 친밀하게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다. 호치민이 프랑스 제국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베트남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듯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도 일본제국주의의 폭압적 식민지배를 타도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호치민의 반제국주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던 한국독립운동 세력과 만날 수밖에 없었다.

1969년 호치민 사후 베트남 노동당의 지도부는 그의 유해를 보존하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소박한 장례식과 화장을 원했던 그의 유언에 반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호치민이 사망한 이후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그의 사상과 역사적 활약상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한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였다. 호치민 박물관은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바딘 광장 묘소 뒤 1990년 5월 19일에 개관되었다.

필자는 2015년 5월 호치민 박물관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팜 꾸옥 수(Pham Quoc Su) 박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필자의 오랜 친구인 팜 꾸옥 수 박사의 안내로 호치민 박물관을 안내받게 되었다. 호치민 박물관은 전면에 하얀 대리석을 발랐고, 묘소와 같이 연꽃을 닮은 모습으로 설계되었다. 박물관에는 호치민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여덟 개의 주제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 내용을 따라가면 호치민의 삶 전체를 개관할 수 있다.

박물관 초입에 베트남 국민들을 상대로 손을 흔드는 모습의 호치민 동상이 있고, 관람 동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전시관을 볼 수가 있다. 호치민 박물관 전시 내용은 오랜 반제국주의 투쟁과 조국을 통일시키겠다는 호치민의 열망을 아주 잘 담고 있다.

호치민 박물관의 전시를 관람하면서 필자는 수많은 베트남 국민들이 사랑을 받는 친근한 '호 아저씨'라는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는 의도가 강하게 느껴졌다. 호치민이 힘든 투쟁 기간에도 베트남 민중들과 함께하는 사진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으며,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던 그의 소박한 일상생활 물품들도 전시되어 있다. 서민적인 태도로 베트남 동포의 삶을 개선한다는 대의에 평생을 헌신해 온 사심 없는 애국자라는 점을 보여주곤 하였다.

호치민은 공산주의의 유토피아적인 이상도 추구하였지만, 제국주의로부터 억압을 받는 민족독립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투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이끈 건 공산주의가 아니고 애국심이었다. 자유와 독립 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하였다. 호치민이 이데올로기적으로 공산주의로 기운 것은 비인도적이며 반인륜적인 제국주의를 혐오하고, 베트남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이 시간에도, 베트남 혁명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호치민을 보기 위해 하노이 바딘 광장에 있는 호치민 묘소와 호치민 박물관을 찾을 것이다. 📍



하와이 바딘 광장에 있는 호치민 묘소



호치민 박물관 입구



호치민 박물관 전시관 초입에 있는 호치민 동상



호치민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투쟁 당시부터 사용하였던 타자기



호치민 박물관에 전시된 호치민의 모자

의병, 독립군, 광복군에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박석봉 육군사관학교 교수



“우리끼리는 죽네 사네 하며 싸우기도 하지만 외세에 침탈당할 때는 한 몸인 듯이 외세에 대적해야 한다. 그게 백성이죠”,
“나라는 그냥 나라인 거지, 나라가 뭘 해줘야 나라인가”.

송은일 작가의 「나는 홍범도」에서 홍범도는 나라 잃은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담담하게 말한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홍범도」는 의병 홍범도의 인간으로서의 깊은 성격과 백성들과 한 몸이었던 리더십이 조선의 산포수인 그를 독립군의 대장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낸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 홍범도의 인간적인 동료의식과 끈질긴 독립정신의 리더십은 현재 군의 리더십에도 꼭 요구되는 필수역량이다. 독립군들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군 광복군의 목숨을 바쳐 독립투쟁한 위국헌신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제강점기의 광복을 위한 항일무장 투쟁을 도외시하게 되면 그 시기의 독립투쟁의 역사가 부정되어, 자칫, 갑오왜란을 일으키고 한국강제병합을 자행한 무도한 일제와 왜군의 야만성을 덮어주는 왜곡된 역사를 옹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광복 후 군의 역사는 미군정 및 정부수립 당시 현실론에 부딪혀 일본군, 만주군 출신에 치우친 인사로 의병 정신과 독립군 광복군의 민족 독립정신을 군인정신으로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만다. 광복군은 신홍무관학교 출신, 학병 출신 탈출병, 일본 육사 출신, 중국 군관학교 출신 등이 조국 독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된 조직이었으나, 일제 경찰 체제를 더욱 강화한 미군정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 우리 군의 창군 초기에 광복군의 문화, 즉 서로 존중하는 수평적 리더십과 자주 독립정신을 군대 문화로 정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우리 군의 전쟁사 내용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 세계 2차 대전 및 6.25 전쟁에 집중되었기에,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독립전쟁에 대한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갑오왜란 전후부터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을 찾기 위해 치열하고 끈질기게 항일 무장 투쟁을 이어갔던 수많은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에 대한 체계화 된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항일무장투쟁과 독립전쟁에 대한 군사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몸바친 의병, 광복군, 독립군의 맥을 잇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광복군 참모장이었던 이범석 장군을 초대 국방장관으로 임명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임기 7개월로 끝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육군사관학교는 이범석 장관 취임 전인 48년 8월 초에 사관생도 7기생을 이미 선발하였는데 여기에 광복군 출신은 없었다. 미군정기에 광복군 출신은 군에 입대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취임 후 이범석 장군은 육사 입학제도에 나이 제한이 없는 추가모집제도를 도입하여, 같은 해 8월 말에 7기 특별반, 12월에 8기 특별 1,2,3반에 1,800명을 모집하여 광복군과 군 경력자를 선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 중에는 부자(父子)가 같은 기수로 입학하여 광복군 출신 아버지는 소령으로, 아들은 소위로 동시에 임관했던 사례들도 있다. 장교로 임관한 광복군의 다수가 1~2년 후 6.25 전쟁에서 국군의 중간급 지휘관으로 전투를 지휘하다 전장에서 전사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일제강점기에는 광복군으로 일본군과 싸웠고,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의 국군으로 북한의 무력남침에 대항하여 싸웠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들은 광복군이자 국군으로 자발적 군인이 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진정한 군인이었다. 이러한 군인정신을 이 나라의 참 군인정신으로 승화시키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초창기에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맡았던 인물들도 광복군 출신이었다. 조선경비사관학교 시절 송호성(4대)이 교장에 임명된 이래, 육군사관학교로 명칭이 바뀌면서 광복군 출신이었던 최덕신(6대)-김홍일(7대)-이준식(8대)-안춘생(9대) 등이 교장으로 임명된다. 김홍일 장군은 김구 선생의 부름을 받아 윤봉길 이봉창 의사 폭탄 조달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광복군 참모장을 역임하였으며, 광복 후 국군이 되어 6.25 전쟁 초기에는 패잔병을 모아 재편성한 부대로 3일간의 한강방어전투를 이끌어 미군이 참전할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을 확보했던 전쟁영웅이다. 안춘생 장군은 안중근 의사의 5촌 조카였다.

즉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 군의 연원을 찾아가면 대한제국 군인들이 의병으로 앞장섰고, 신홍무관학교를 통하여 의병이 독립군으로, 독립군은 광복군으로 이어졌고, 광복군은 6.25 전쟁까지 싸우며 대한민국 국군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의병정신, 자주 독립정신, 인간적인 상호존중정신과 적으로부터 이 땅과 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위국헌신의 정신을 재점령하여 계승하는 일은 지금의 대한민국 군대가 강한 군대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

이처럼 군인들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사명감은 올바른 역사 의식과 홍범도와 같은 인간적인 의병정신에서 비롯된다. 특히 장교양성과정에서 우리 군의 뿌리를 아는 역사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 육군사관 학교는 2018년 3.1일 김좌진·홍범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홍무관 학교를 세운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건립했다.

흉상은 군 장병들이 실제 훈련에서 사용한 탄피 300kg를 녹여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제작했다. 탄피 300kg은 5.56mm 총알 5만 발에 달하는 양이다. 이는 총과 실탄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봉오동·청산리 대첩 등 만주벌판에서 일본 정규군을 대파하고 독립전쟁의 불씨를 타오르게 한 독립군 광복군 전우들의 정신을 현재의 장병들이 계승하여 우리 역사의 시공간을 미래로 확장하기 위함이다. 흉상 표지석에 선배 전우들이 목메어 불렀던 독립군가 “압록강 행진곡” 첫 구절을 새겼다. 그리고 오늘의 사관생도들은 독립영웅 앞에서 두 주먹 힘껏 쥐고 압록강행진곡을 합창했다.

“우리는 한국 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㉓



홍범도 장군 흉상

소설 '나는 홍범도' 출간



송은일 장편소설

송은일 작가가 쓴 소설 〈나는 홍범도〉가 도서출판 바틀비에서 지난 17일 출간되었습니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당시 아시아 최강을 자랑하던 제국주의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독립군이 대승을 거둔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에 나온 대하소설.**

**항일전쟁의 주역 여천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유장한 흐름의 역사소설이다.**

**부모를 모두 잃고 아홉 살부터 머슴살이를 시작해
소년 나팔수, 제지공장 노동자, 승려, 산포수를 전전하며
식민지 빼앗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을 맴돈
외로운 청년 홍범도.**

**백발백중 사격술로 일제의 심장을 겨누는 조선 최고의 스나이퍼.
일제에 의해 아내와 아들을 희생당하고도 독립의 총을 끝내
놓지 않은 전사.**

**마오쩌둥, 체 게바라보다 수십 년 앞서 게릴라전과 기동전을 창안해
거대 제국주의 군대와 맞선 전략가.
압록강을 건너 수십 회의 국내 진공 작전을 펼친 항일전쟁 지도자.
그 파란만장한 삶이 소설 속에 펼쳐진다.**

[출판사 블로그] 중에서

- 〈차례〉
- 1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 2 끝내 이긴다
 - 3 바늘 끝으로 벼룩 잡기
 - 4 그 가을에서 이 가을까지, 꿈
 - 5 의병들
 - 6 한성, 겨울
 - 7 억패장골
 - 8 호좌의진
 - 9 여기서부터 9만 리
 - 10 오래된 소나무 숲 사이를 스치는 바람같이
 - 11 해후
 - 12 풍산 포연대장
 - 13 총기를 등록하라
 - 14 빠르고 빛나게
 - 15 조선군대
 - 16 꽃피고 새가 올 제
 - 17 산이 높은 저 고개에 자고 가는 저 구름아
 - 18 지금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 19 대한독립군
 - 20 봉오동 전투
 - 21 태극기와 햇불과 폭탄과 별
 - 22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소설 중에서

P. 16 —일부러 찾지 않았음에도 호랑이와 딱 마주쳤을 때는 어찌합니까?
범도의 질문에 심 노인이 대답했다.
—빛과 어둠이 어느 쪽인지를 먼저 생각해라. 호랑이가 어두운 쪽인가, 내가 어두운 쪽에 있는가. 호랑이가 밝은 쪽이면 나는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다. 호랑이는 천생 사냥꾼이라 사냥하려 할 때는 제 몸뚱이를 어두운 쪽에 두기 때문이다. 그다음엔 호랑이와 나 사이에 여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내가 달아날 수 있을 만한 여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여백이 있으면 뒤로 가만히 물러나고, 모든 게 짝 차 여백이 없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호랑이를 못 본 듯이 굴어야 한다. 내가 저를 해칠 뜻이 없음을 보여주는 게다.

P. 37 “왜군들이 가진 신식 총과 기관총에 대해 들었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화승총인데, 저들은 전군이 무라타 소총, 스나이더 소총이라는 걸로 무장했대요. 작년에 남녘에서 수만 명이 들고 일어난 동학군들이 왜군들 앞에서 속수무책 당한 까닭도 그 신식 총과 기관총들 때문이라는 말이었어요.”

P. 38 쟁개비에서 고기 꼬챙이를 집어 올리던 범도가 우하하하, 웃어댄다. 그의 웃음소리 때문이더라도 하듯이 주변 나뭇잎들이 우르르 떨어진다. 낙엽 철이라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이고 바람 불어 떨어지는 것인데도 수험한테는 범도 웃음소리가 나뭇가지를 흔들어 댄 것만 같다. 천지간 나무들한테 간지럼을 태운 것 같다고 할까.

P. 43 어린 날 전해 듣기로 초승달처럼 가녀렸던 어머니는 범도를 낳던 즈음에 하루 한 끼니나 간신히 먹었다. 아기 담은 배만 불룩했을 뿐 피골이 상접했다. 아버지가 부역 나갔다가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몇 달째 운신을 못하던 즈음이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남은 피와 살과 뼈를 그러모아 범도를 낳았다. 아기 낳느라 미래를 모조리 당겨썬던 어머니는 핏덩이한테 빈 젖을 물려놓은 채 기진했고 아기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어머니 스무 살 때였다. 젖동냥을 해서 아들을 키웠던 아버지는 범도 아홉 살에 버섯을 따러 나섰던 벼랑에서 추락했다.

P. 128 입영 후 이태나 지나서 모아뒀던 군수표를 주고 『손자병법』을 구입했다. 책을 읽지는 못했다. 알고 있는 한자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더 배울 틈이 없었다. 가르쳐줄 사람은 더 없었다. 주홍석 군관은 너무 높은데다 좌영에 있어 접근할 엄두를 못 냈다. 날마다 각종 훈련도 받아야 했다. 훈련이 끝나면 나이 많은 동기들의 총기 치다꺼리를 했다. 노상 총을 분해해서 닦고 재조립했다. 범도는 3백여 정의 진위대 총을 모두 쓰다듬었을 만큼 무기고 안이 좋았다.

P. 188 장명엽이 부상자들 몸속에서 총탄들을 파냈다. 거의 손수에 들어 있던 환자들이 입에 재갈을 물렸음에도 생살이 찢기자 어마어마한 비명을 질러댔다. 장명엽은 총알을 파낸 자리데다 소독제를 들이부었다. 얼마나 독한 약인지 소독제 부은 부위가 끓는 듯이 부글거렸다. 그렇게 열한 번을 반복하는 동안 대원들이 병실 앞에 모여 환자들의 비명을 들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며칠 후든 죽을 거라고 여긴 부상자들이 저 법석 끝에 살아날 수 있을지, 그걸 믿기 위해 동기들의 비명을 감당했다.

P. 196 “예. 무례하든, 무엄하든 하겠지요. 상놈이 양반들 앞에서 떠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극상이요? 안승우 중군장과 김백선 선봉장 사이에 하극상의 죄가 어떻게 성립되니까? 양민이 양반한테 댔다고 하극상입니까? 이 호좌의진이 뭘 하려 모인 집단인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나라에서 양반이니 양민이니 하는 신분을 철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지한테 하극상이라는 죄를 씌워 목을 칩니까? 지금 이처럼 따지는 저한테도 하극상을 씌워 목을 따실 겁니까? 그리하여 양반님네로만 구성된 지휘부로 한성으로 진공하실 겁니까?

P. 263 아내가 어제 곧 쫓아왔는지 저녁때 주먹밥 스무 개가 들어왔다. 아내는 범도가 혼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을 아는지라 이미 옥바라지를 시작한 다른 부인들 몇 명처럼 군동에 방을 얻을 것이다. 아내는 함께 살기 시작한 이래 노상 나가 사는 범도를 의지할 지아비가 아니라 돌보고 보좌해야 할 의병대장으로 여긴다. 지난 9년 동안 아내는 지아비가 하는 일을 위해 제 부모한테 물려받은 전답들 태반을 팔았다. 회당 지을 때부터 아내의 재산을 털어먹기 시작한 셈인데 을사년과 병오년 전투 때 본격적으로 팔게 했다. 워낙 이동해 다니므로 식량을 현지에서 조달해야 했다. 그러자면 현금이 필요했다. 아내는 야금야금 전답을 팔아 범도한테 돈을 보냈다.

P. 304 범도는 지대장들한테 의병대가 천 명 정도로 커질 것에 대비하여 운영 방법을 찾으라 했다.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부대 노래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범도와 중군장 한영준이 격문을 만들었는데, 부대장 양혁진이 격문을 부대 노래로 만들자고 했다. 대원들이 널리 부르게 하여 결속력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모두 찬성했다. 노랫말에 붙일 음률이 문제였다. 씩씩하면서 여운 깊은 음률을

누가 만들어줄 것인가. 부대 안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았다. 신흥 천불산 아래부리 문수골에서 왔다는 스무 살의 고호수가 뽑혔다.

P. 310 말리고개 말통 분지가 상당히 넓다고는 하나 양쪽 입구를 막고 위에서 내려 쏠 수 있으니 우리 쪽 위치가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적군은 함흥에서부터 올라와 북청에서 하루 쉬고 90여 리 행군에 나섭니다. 말리고개는 북청 쪽에서 영마루를 넘어 두 번째 고개입니다. 90여 리 행군에서 절반 이상, 50리쯤 걸은 뒤에 말리고개에 닿게 됩니다. 완전군장으로 산길 50리 걷고 나면 천하장사라도 지치기 마련이지요. 우리가 짐 없이 하루 내 걸으면 200리쯤 줄이기도 합니다만, 군인들은 완전군장을 하고 걷잖습니까. 놈들이 말리고개에 닿으면 분명히 한 식경 이상은 쉴 것입니다. 그 길에서 1700수가 한꺼번에 쉴 수 있는 평지가 거기 말고는 없고요.

P. 331-332 구로키는 제 입으로 자신이 고문 전문가라 했다. 고문 전문가답게 가지가지 방법으로 옥영을 고문했다. 어떤 날은 가죽 끈으로 두들기고 어떤 날은 손톱 밑마다 쇠꼬챙이를 박고 어떤 날은 손톱을 뽑았다. 손톱 뽑은 손가락 사이에 심지를 심어놓고 불을 피우기도 했다. 어떤 날은 발가락을 으깨고 어떤 날은 죽기 직전까지 물속에다 머리를 처박았다. 어떤 날은 가랑이 사이에 방망이를 쑤서 넣었다.

P. 373 삼둔치는 봉오동 입구 서느락골에서 시오 리 밖에 있는 조선인 마을이다. 간도가 원래 조선 땅이라 골짜기마다 조선 사람이 살았다. 조선이 일제에 침략당하면서 살기 어려워 강을 건너온 인민들로 혼했다. 근 2, 30년 새 건너온 사람들이 삼둔치 일대를 일켰다. 그렇게 일군 전답이 상당했다. 독립군 비전투원들도 봉오동에서 인근 마을들을 오르내리며 땅을 일켰고 씨앗을 뿌렸다. 여천도 삼둔치에 여러 차례 들러 쉬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P. 403 안개에 휩싸인 봉오동 골짜기가 고려령까지 들려지는 듯이 거대한 함창이 이루어진다. 여천은 군가를 듣고 부를 때 자주 그렇듯이 또 김수협을 떠올린다. 끝내 이길 거라고 힘주어 말하던 동지, 그 다정했던 벗! 또한 떠오르는 아내. 생전에 아내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던 말들.

P. 417 “약초꾼이 오래 묵은 산삼 몇 뿌리 캐다고 자랑치 아니하는 법이듯, 호랑이를 몇 수 잡았다고 떠벌리면 안 되는 게 사냥꾼 세상 불문율이오. 어쨌든 김 사령관이 어떤 상상을 하든 그 이하라는 것만은 말씀 드릴 수 있겠소.”

P. 443 여천은 네 호위와 함께 그냥 걷는다. 여천은 그냥 걷지만 광방언, 김성집, 여민, 고천동은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방을 살피며 움직인다. 각기 식구들이 있는 그들에게 그간 국내로 편지를 전달하라는 핑계로 몇 차례 집에 다녀오게 했다. 다니러 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미인 걸 네 사람도 잘 알아들었다. 잘 알아들어도 네 사람은 군자금을 얻어 여천에게로, 전선으로 돌아왔다. 📖

7월 29일 <나는 홍범도> 북콘서트-국회도서관 강당



송은일 작가



진도북춤공연



내빈



어린이 노래그룹 작은평화

Book Concert <나는 홍범도>

우원식 이사장 기념사



반갑습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국회의원 우원식입니다. 곳은 날씨에도 '나는 홍범도'북콘서트에 찾아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겨울과 봄, 여름 세 계절 동안 홍범도에 폭 빠져 집필에만 몰두 하시며 '나는 홍범도'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송은일 작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가님의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홍범도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이 만들어지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 소설은 독립전쟁의 최고의 정수인 봉오동전투와 청산리 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발간하는 책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큼니다.

기념사업회는 올해 독립전쟁 100주년을 맞이해 관련 문학작품을 만드는 것이 역점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봉오동 전투를 역사책에서 기록된 사건으로 접할 뿐, 당시 전투의 의미와 담대한 항전, 수 많은 항일 영웅들의 희생과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빈곤한 역사 교육 탓이기도 하지만 좋은 문학작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3000년 전에 유럽 땅에서 일어난 트로이전쟁은 어느 매체든 익숙하게 접할 수 있고 해토르, 아킬레우스, 헬레나 등 영웅들의 이름은 너무나 친숙합니다. 아마도 호메로스의 고전 '일리아드'가 오랜 세월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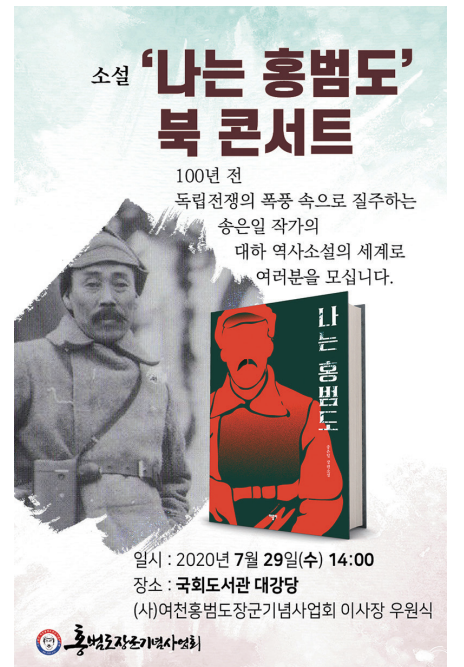
반면, 불과 100년 전 우리 독립전쟁 영웅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나열하지 못한다는 것은 후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문학작품으로 재탄생시키고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통해 다시 우리에게 기억될 때, 역사는 비로소 동시대를 사는 대중들의 삶 속에서 숨 쉴 수 있습니다.

비록 10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했지만, 이제라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와 그 주역들을 문학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 최고의 저격수 홍범도', '불꽃처럼 산화한 홍범도 부대 첫 의병 김수협', '권총을 차고 다닌 여걸 이옥영', '번개처럼 빠른 대한독립군 별동대장 이화일'같은 항일 영웅들을 이 소설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홍범도장군은 독립전쟁의 승리를 이끈 전설적인 영웅이었지만 자신을 낮추고 늘 주변의 평범한 이웃과 함께 했던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고아, 머슴, 식객승, 제지공장 노동자, 포수출신으로 나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오직 애국심으로 분연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그 동안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던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국민 속에 제대로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홍범도 장군을 고국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봉환일정이 연기되기는 했지만, 장군의 높은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의 안장 뿐만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무명독립군을 위한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북콘서트 개최를 축하하며, 100년 전 독립 전쟁의 폭풍 속으로 질주하는 대 하 역 사 소설의 세계로 빠져들어보시길 바랍니다. 📖



북도코 최광임시인 송은일 작가

독립운동전선 제단에 목숨 바친 홍범도 장군의 부인과 두 아들

가족에 관한 얘기를 멀리했던 홍범도

홍범도는 휘하의 동지들과 일반 대중들의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평민 출신의 의병장, 독립군대장이었지만, 정작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홍범도는 누구를 만나든지 초면에 인사를 할 때면, “나는 갑산 포수요”하거나 “북청사람이요”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홍범도 자신이 직접 구술하고 쓰기도 한 《홍범도 일지》가 국내에 소개되기 전까지, 홍범도의 출생지가 북청이나, 갑산 또는 삼수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 누군가 홍범도를 조용히 만나 자기 고향을 말하지 않는 이유를 문 의하면 그는 항상 대답하기를, “동지는 벌써 조선이 독립된 줄로 알고 있소?! 누가 자기 고향이나 인척이 없겠소마는 우리 고향인 그곳에는 우리 친족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왜놈들과 왜놈의 ‘개’들인 조선놈들도 살고 있는 것을 언제든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고 했다고 한다.

홍범도는 전가족이 일본군으로 인하여 희생되고 늙어서도 후손도 없이 적적인 생계를 유지하다가 세상을 떠난 만큼, 누구든지 가족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 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홍범도가 자신의 가족에 관한 회상과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홍범도 일지》에서도 선조(先祖)는 물론이고 심지어 부모의 성함조차 남겨 놓지 않았다. 《홍범도 일지》는 1938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있던 고려극장의 극작가 태장춘이 연극 〈의병들〉(홍범도)의 희곡을 쓰기 위하여 홍범도를 자기 집으로 여러 날 초대해서 구술케 해서 기록한 것이었다. 그나마 홍범도는 《홍범도 일지》에서 부인 ‘단양 이씨’와 두 아들의 이름 ‘양순’과 ‘용환’을 밝혀 놓았을 뿐이다.

홍범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항일혁명가 이인섭

홍범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그의 활동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동지를 들자면 단연 이인섭을 꼽아야 할 것이다. 이인섭은 홍범도와 마찬가지로 평양 출신으로서 의병운동에 뛰어들어 이후 항일혁명운동과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했으며,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말년의 홍범도와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인물이다. 스탈린대단압의 광풍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던 시절, 유배상태에 있던 이인섭은 홍범도를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발에서 조심스럽게 만나야 했다. 이인섭은 분파투쟁으로 얼룩진 항일혁명운동에서 반드시 파당적 비판을 삼가야 한다면, 필히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인물로 김 알렉산드라, 이동휘, 그리고 홍범도 세 사람을 들었다. 그는 홍범도가 죽은 지 8년이 지난 1951년에 ‘홍범도 장군 분묘수리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를 기억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성금과 지원을 받아 꺼져가고 있던 홍범도의 분묘를 수리·조성했을 정도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과 애정의 마음이 남달랐던 인물이다.

그는 홍범도 사후 홍범도와 의병투쟁이나 독립군활동에서 함께 했던 박성태, 심상원, 김소림(김호), 김승빈, 이창기, 김홍무 등은 물론, 항일무장투쟁전선에서 싸웠던 이종학, 김재규, 김희영 등 전우들의 회상을 수집·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려극장 배우이며 태장춘의 부인인 이함덕이 옮겨 쓴 《홍범도 일지》를 깨끗하게 정서하여 두 종류의 훌륭한 판본을 남겼다. 그는 또한 《홍범도 일지》와 생존해 있던 항일투사들의 회상록 등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력사소설 홍범도 장군》(상·하)을 집필하는 등 홍범도에 관한 소중한 기록들을 남겨 놓았다.

홍경래 가문의 후손?

홍범도의 증조부와 관련하여 1811년 평안도 농민봉기의 주역 홍경래와 연관시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유포되어 있다.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홍범도가 직접 구술한 《홍범도 일지》나 당국에 제출한 〈리력서〉나 〈양케트〉, 그리고 홍범도 전우들의 회상담을 기록해 놓은 이인섭의 《정치력사소설 홍범도》에는 홍범도의 선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홍범도를 처음으로 홍경래와 연관시킨 사람은 이인섭의 권유와 자료 제공을 계기로 《역사기록 소설 홍범도》를 쓴 고려인 작가 김세일이다. 그는 1965년부터 1969년까지 124회에 걸쳐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간행되던 고려인 한글신문 《레닌기치》에 소설 《홍범도》를 연재하여 고려인 독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김세일은 이 작품을 수정·보완한 원고를 소련붕괴 직전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고 고송무 교수에게 건네주어 한국에서 《역사기록소설 홍범도》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다. 김세일은 1945년 8월 소련의 대일전(對日戰)에 정치부 일꾼으로 참전하였고 이후 평양에 남아 1954년 1월까지 9년간 소련군 신문사에서 일하다가 소련으로 귀환한 인물이다. 북조선에 체류할 당시 김세일은 간혹 홍범도를 아는 노인들로부터 홍범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한 노인으로부터 “홍범도가 신출귀몰하는 의병장이라고 소문나니 어떤 분들이 홍범도가 홍경래네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담한 용장이 되었다고 합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김세일은 소설을 쓰게 되면서 이 노인의 말을 되살렸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소설에서 홍범도의 증조부가 “홍경래와 그리 멀지 않은 친척으로”, “평안도 용강 화장골에서 홍경래네와 같이 살았던” 인물로 묘사하였다. 농민봉기가 진압되고 홍경래 가문이 전부 화(禍)를 입게 되면서 홍범도의 증조부가 평양으로 이사 와서 장사아치 노릇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세일의 소설에서 홍범도의 할아버지는 미국 “해적선 ‘제네랄 샤만’ 사건 당시 민병대에 자원하여 관군과 더불어 ‘샤만’호를 습격하다 적의 흉탄에 맞아 전사한 인물로 설정되었다. 최근에 나온 송은일 작가의 소설 《홍범도》에서는 홍경래가 홍범도의 고조부로, 증조부는 ‘홍장양’으로 묘사되어 있다.

홍범도의 아버지와 어머니

홍범도의 어머니는 그를 낳은 지 7일 만에 죽고 아버지는 그의 나이 9세 때 세상을 떠났다. 홍범도는 1928년 은퇴하면서 연구수령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리력서〉와 〈양케이트〉에서도 부모의 성함을 적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사회성분을 “빈농민 가정”이라고 적시했을 뿐이다. 이는 이인섭의 《정치력사소설 홍범도》에서도 마찬가지다. 김세일 작가 역시 그냥 ‘홍서방’이라고 했다.

홍범도 부친의 실명을 ‘홍윤식(洪允植)’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한 이는 재일사학자 강덕상 교수이다. 그는 1984년 간행한 《조선독립운동의 군상》에 실린 〈의병대장 홍범도의 생애〉에서 홍범도 부친의 이름을 홍윤식으로 밝혀 놓았다. 소설가가 아닌 역사학자로서 강덕상 교수가 임의로 지어냈을 리는 만무하고, 일제가 작성한 첩보자료에 근거했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한국 학계에서도 《홍범도 일지》(김세일본)을 처음 활용하여 논문을 쓴 장세운 박사가 ‘홍윤식설’을 받아들였다. 필자도 이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수용하였지만, 새로이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북조선의 리빈이 2007년에 출간한 《장편전기문학 홍범도》에서도 홍범도의 부친 ‘홍윤식’이 실학사상을 계승한 개화사상을 수용한 인물로서 갑신정변의 주역인 홍영식이나 그의 사촌 홍규식과 같은 항렬로서 이들과 폭넓게 교류하는 인물로, 그리고 홍범도 역시 이들과 깊은 동지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설정은 소설 《나는 홍범도》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홍범도는 자본가이며 착취적인 동학교도인 종이공장 주인 3형제를 도끼로 찍어 죽일 정도로 동학을 혐오했다. 그의

배일정신은 과격할 정도로 철저했던바 동학 계통으로 일제의 앞잡이가 된 일진회 회원들이나 단발을 한 이들을 보면 무차별할 정도로 처단했다. 그만큼 개화사상과 일본을 혐오했던 홍범도가 개화파 인사들이나 동학 접주와 동지적 관계를 가졌다고 한 것은 아무리 소설일지라도 너무나 역사적 사실과 동떨어진 설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어머니에 대하여 홍범도는 《홍범도 일지》에 “모친은 칠일 만에 죽고”라는 짧은 한마디밖에 남겨 놓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소설들에서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서술은 없다. 다만, 김세일 작가가 《역사기록소설 홍범도》에서 어머니가 죽은 후에 홍범도의 아버지가 “안해(아내)를 대성산 기슭에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었다”고 썼다.

필자는 최근에 우연히 저명한 법철학자이며 이병도의 식민사관 수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는 고 최태영 박사의 저서 《나의 근대사 회고》를 접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 저서에서 홍범도의 어머니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뜻밖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최태영 박사는 저서에서 황해도 은율군 장련 직전리(피앗골) 소재 할아버지 소유의 산을 감시하는 산막 가까이에 커다란 선바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의 어머니 묘가 있어 내가 묘지기처럼 잘 돌보았다. 호랑이 포수들은 신미양요 때 미국군함의 공격을 물리친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홍범도는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 선바위를 비석 삼아 묘를 쓰고 만주로 나간 것 같다”라고 써 놓은 것이다. 덧붙여 최 박사는 “장련에는 평안도에서 난을 일으켰던 홍경래도 와서 살았다고 한다”고 덧붙여서 소위 ‘홍경래 가문설’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홍범도의 부인, 단양 이씨

홍범도는 《홍범도 일지》에서 1895년 황해도 서흥 출신의 김수협과 의기투합하여 1차거의에 나선 이래 조직적으로 또는 단독으로 의병활동을 하다가 “철(鐵, 탄환) 없고 의포(衣布) 없고 신발없고 고생하다 못하여 그만 변성명하였던 것을 버리고 제(자기)를 홍범도로 부르면서 함경도 북청 단양 리가에게서 서방들”었다고 썼다.

《홍범도 일지》의 이 짧은 기록에 덧붙여서, 이인섭은 《정치력사소설 홍범도》에서 홍범도가 “변성명하고 경기 수원 덕수 리가 지담의 상좌로 삭발위승”하고 들어간 금강산 신계사에서 단양 이씨를 만나 함께 속세로 나오게 되나 불행하게도 원산에서 건달패들을 만나 비극적인 이별을 하게 된 얘기를 풀어놓았다. 이인섭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홍범도의 오랜 동지였고 함남 북청 출신으로 홍범도의 평생동지였던 박성태의 회상담을 빌려 ‘단양 이씨’에 앞서 만난 ‘청춘과부 탄실’이라는 여인과의 비극적인 사연을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해 놓았다. ‘탄실’이는 황해도 신계에 사는 여인으로서 홍범도와 “연애 관계를 맺고서 장래에 부부 되기를 언약”한 여인이었다. ‘탄실’이는 ‘건달 잡기꾼’ 아버지와 오빠에 의해서 ‘폐병쟁이’ 그리고 ‘반병어리’에게 돈에 팔려갔던 신세로 홍범도와 ‘자유연애’를 한 사이지만,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자살하고 마는 비운의 여인으로 그려져 있다.

단양 이씨에게 ‘이옥녀’라는 이름을 붙인 이는 이인섭의 《정치력사소설 홍범도》를 폭넓게 인용한 김세일 작가이다. 김세일의 《역사기록소설 홍범도》를 읽은 사람들이 소설 속의 이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홍범도의 부인 이름을 ‘이옥녀’라고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역사논문에 비하여 소설의 대중적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홍범도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바, 단양 이씨가 일제의 고문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08년 봄 일제의 귀순도벌 작전이 극치에 달했을 때 일진회 간부들인 임재덕, 김원홍, 최정옥이 일본군과 조선인 보조원들을 동원하여 부인 단양 이씨와 아들 양순을 잡아다가 거짓편지를 써서 홍범도를 화유하려고 하였다. 단양 이씨가 “계집이나 사나이냐 영웅호걸이라도 실골 같은 목숨이 없어지면 그뿐이거든 계집의 글자로 영웅호걸이 곧이듣지 않는다”며 “너희 맘대로 할 것이지 나 아니 쓴다고 무수한 욕질한 즉, 저 악독한 놈들이 심지에 불 달아 두 발꼬락 사이에 끼우고 반주검 시켜도 종내 항복하지 않으므로 갑산으로 잡아들여 보냈다”는 것이다. 이인섭은 《정치력사소설 홍범도 장군》에서 일제의 고문으로 반주검이 된 단양 이씨가 “혀를 끊어 병어리가 되면서도 변절치 아니하고 조국을 위하여 보통 인민을 위하여 원한에 세상을 떠났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홍범도의 첫째 아들, 의병 동지 홍양순

홍범도에게는 양순과 용환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가 홍범도였다는 이유 때문에 고초를 겪게 되고 그들 스스로 몸소 항일무장투쟁 전선에서 싸우다가 희생되었다. 이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양순과 용환 모두 홍범도 장군과 부인 단양 이씨 사이의 소생으로 모두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고난을 겪고 결국에는 희생되고 만

열렬한 항일투사들이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하건대, 양순과 용환은 홍범도가 신계사를 떠난 1891년(또는 1892년) 이후 제1차 거의에 나서게 되는 1895년 전후의 어느 시기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홍범도 일지》에는 장남 양순의 출생에 관해서는 언급된 바 없다. 다만 이인섭이 쓴 《정치력사소설 홍범도 장군》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르면, 단양 이씨는 금강산 신계사에서 홍범도를 만나 함께 지냈을 때 양순을 잉태하였다. 홍범도는 1895년 이후 약 5년간의 의병활동을 접고 내려간 함남 북청에서 단양 이씨와 두 아들을 재회하게 된다. 이후 홍범도는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제2차로 거의할 때까지 농사와 포수생활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렸다. 홍범도의 전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면, 온가족과 더불어 함께 살았던 이 시기가 아닌가 한다.

《홍범도 일지》에는 홍양순이 홍범도 의병부대에 가담하여 1907년 11월 14일, 함남 후치령 말리(마루) 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후치령 말니 전투는 홍범도가 1907년 9월 일제의 이른바 ‘총포 및 화약류단속법’을 반포하고 포수들로부터 총기를 압수하고 이에 저항하는 포수들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체포·학살방화를 일삼자, 이에 저항해서 일으킨 의병봉기(제3차 거의) 이후 수행한 첫 번째 전투였다. 홍범도는 자신의 일지에서 일본병 “1,400명과 전쟁을 하여 일병 반수 이상이 조선인 보조인 230명이 죽고” 의병 김춘진, 황봉준, 이문형(이문협), 조강록, 임승조 등 “제일등 포수 여섯 사람이 죽었”으며, 일본군과의 첫 전투라서 의병들이 “총들 부려 던지고 썩 도망하고 한 놈 없이 우리 부자(父子)만 남았습니다”라고 썼다.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몇 개월의 의병활동을 하던 양순이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일시 귀가하지만, 일제는 일본군 103명과 조선인 보조원 80명을 동원하여 홍범도 집에 돌입하여 단양 이씨와 아들을 함께 감옥에 잡아넣었다.(1908년 3월 20일) 그때는 일제의 의병 귀순 공작이 한창 극성을 부릴 때였다. 일제와 일진회는 홍범도의 부인과 아들 양순을 협박하여 귀순을 유도하는 편지를 홍범도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부인 단양 이씨를 고문 등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그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러자 8명의 조선인 보조원을 파견하여 귀순을 유도하는 편지를 홍범도에게 전달하고자 했지만, 이들 모두 홍범도에 의해 처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일제는 아들 양순이로 하여금 편지를 휴대하고 홍범도부대 진영을 방문하게 했다. 홍범도는 아들 양순을 보고 대뜸 “이 놈아 네가 전(前)달에는 내 자식이지만은 네가 일본 감옥에 삼사삭(朔) 간혀 있더니 그놈의 말을 듣고 나에게 해(害)를 주자고 하는 놈이야 너부텀 썩 죽여야 하겠다고 하고” 총을 쏘았으나, 다행히 귀방울을 망가뜨려 떨어지는데 그치고 “죽기는 면하였다.”(1908년 4월 28일)

홍양순은 아버지 홍범도처럼 총쏘는 솜씨가 뛰어났다고 하며, 특히 홍범도 의병부대의 중대장으로 활약하면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특히 1908년 5월 15일경(음력, 양력, 6월 13일) 함흥 천보산 전투에서는 그가 창안한 “하수아비(인형)-꿀벌” 매복작전으로 일본군을 대파하였다고 한다. 천보산 전투 며칠 후인 1908년 5월 18일(음력, 양력 6월 16일) 함남 정평 바맥이(바백이) 전투에서 홍양순 중대장이 전사하였다. 홍범도는 자신의 일지에서 “일본군 5백명과 싸우며 107명 잃고 내 아들 양순이 죽고 거자 의병은 의병 6명이 죽고 중상자가 8명이 되었다. 그때 양순은 중대장이었다. 5월 18일 12시에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고 회상했다. 시가지까지 기억할 정도로 홍범도는 큰 아들 홍양순의 죽음으로 인한 통렬한 아픔을 말년까지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홍범도의 둘째 아들, 독립군 동지 홍용환

《홍범도 일지》에서 둘째 아들 홍용환에 관한 기록은 단 한 번 나온다. 홍범도는 러시아와 중국으로 파견한 무기구입 요원들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게 되자, “약철(藥鐵, 화약과 총알)이 업어 일(本)병과 싸도 못하고 일본병이 온다 하면 도망하여 매 본 쟁이 숨듯이 죽을 지경으로 고생하다가 할 수 없어 외국 중국땅 탕해(通化)로 1908년 10월 9일에 압록강을 건너 올때에 신파 기름구피 일본군대와 접전하다가 그날 밤으로 건너와 압록강을 하직”하였다고 썼다. 당시 홍범도는 의병 40명과 함께 압록강을 건넜는데, 길림(吉林)에서 “김창옥, 열두 살 먹은 용환, 권감찰 내 합 4명”은 러시아로 들어가고, 나머지 동무들은 도로 통화로 보냈던 것이다. 1908년 당시 홍용환의 나이가 12살이었음을 보건대, 그는 1896년 또는 1897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망명 이후 러시아에서 1910년대에 홍용환이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지에 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다만 3·1운동이후 1919년 가을이후 홍용환이 독립군으로 활동한 사실이 일제의 간도총영사관의 첩보자료 등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홍용환은 “홍태준(洪泰俊)”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고, 이미 1919년 11월 2일 당시 북만주 나자구(羅子溝) 일대에서 2백명 규모의 독립군 부하를 이끌고 있었다. 1920년 3월 29일 자로 된 다른

첩보문건에는 홍태준(홍용환)이 홍범도가 '대장'으로 이끌고 있던 대한독립군의 제4군 대장으로 나와 있다. 봉오동전투 직후에 홍용환의 동정에 관한 일체의 첩보보고가 남아 있다. "본월(6월) 11일 홍범도의 장남 홍태준(연령 미상)은 노령 추풍지방에 거주 중인 바 불령선인 2백여명을 인솔하고 봉오동에 도착하였다." 이보다 약 한 달 후에 작성된 문건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다. "홍범도의 장남 홍태준은 연해주 추풍 부근에서 동지 약 2백 명을 규합하여 [6월중순경을] 전후로 하여 왕청현(汪淸縣) 알아하(嘎呀河, 伽耶河)에 도착하여 실부(實父)가 지휘하는 부대에 합하였고..."

이처럼 독립군 활동에 전념하고 있던 홍용환이 이로부터 10여일 후인 6월 하순경 중국 군대에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1915년 조선인 조을손(曹乙孫)이라는 자가 중국인 2명을 살해했던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고 체포되는데, 홍용환이 조을손과 동석하고 있다가 혼춘(彈春) 군대에 무고하게 잡혀서 연길(延吉) 감옥에 구금된 것이다. 홍용환의 구금 소식을 접한 대한국민회 회장 구춘선은 연길도윤(道允) 매선(梅仙)에게 서한(8월 27일자)을 보내어 한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홍용환의 부친 홍범도가 "인방(隣邦-조선)의 소위 의병대장으로서 누차 일본군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일본인은 그를 칭하여 '비장군(飛將軍)의 홍범도'라고 하고 감히 접근 저항하는 자 없기에 이르렀고 금일 우리 독립군의 제1회라 칭하는 봉오동의 승전은 즉 홍범도의 획책(劃策)에 관계된 것이다"라며 홍용환을 소개했다. 이어 구춘선은 "홍범도군이 조국을 위하여 헌신적인 사업을 기도한 이래 일가(一家) 모두 왜적의 독수(毒手)에 폐(斃)하여 겨우 이 용환군 한 아들만 있을 뿐"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구춘선은 또한 홍용환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로 죽을 때까지 힘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려는 자로 동포들의 숭신(崇信)하는 바이며 교육을 받고 유교를 존봉하는 효자로서 향당의 부로들이 그 선행을 상찬하지 않은 자가 없다"며 그의 무죄석방을 요청했던 것이다.

구춘선의 요청이 받아들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홍용환은 무사히 석방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홍용환은 항일투쟁전선에서 끊임없이 활동한 것을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2006년 9월 5일 우즈베키스탄의 지미트로프 끌호즈에서 만난 최용섭(崔龍變)옹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15살일 때(1921년경) 아무르주 흑하(黑河)에 홍범도 군대, 안무 군대, 최진동 군대가 와 있었는데, 홍용환이 홍범도 군대가 아닌 다른 군대의 중대장으로 있으면서 자기 집에서 체류했다고 회고했다.

최용섭옹의 증언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일제첩보자료에 의하면 홍용환은 자유시침변 얼마 후인 1921년 8월 1일 '혈판(血判)'으로 맹서(盟誓)"하고 조직하고 국내를 진격하기로 한 총 380명 규모의 결사대에서 한 부대의 대장으로 선임되어 있었다.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정보로 판단되지만, 홍용환은 이로부터 약 5년 후인 1926년 4월 29일 조성환, 정신, 김작진 등 신민부 간부 20명이 북만주 영안현에서 조직한 '연합총의결사대'의 제2대장에 선임되었다는 일제측 첩보기록도 남아 있다.

홍용환의 말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고려인 사회에서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범도와 그의 가족에 대한 자료를 평생 동안 꾸준히 수집하였던 이인섭에 따르면, 홍용환은 "원동 쓰빠스크 지방에서 사망"하였다고 한다. 홍용환의 나이로 보았을 때 병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끊임없는 고난과 풍찬노숙의 항일투쟁 과정에서 얻은 병이 아닐까. 스파스크는 홍범도가 1927~28년경 이 구역 진동촌에서 '빨찌산 알찌리 선봉조합"을 조직하고 농사를 짓고 있었을 때이다. 홍용환이 살아 있었다면 당시 다소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홍범도와 재회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홍범도 사진 가운데 1929년경 러시아 연해주 중·소 국경지역의 항카호(興凱湖) 부근에서 새 부인 이인복과 그녀가 데리고 온 손녀 '예까찌리나'와 찍은 것이 전해지고 있다. 이 사진은 아마도 홍범도의 환갑을 기념하여 찍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홍범도는 항카호 부근의 신두한까촌에 거주했을 때였다. 1929년은 홍범도가 만 60세가 되는 1928년까지 일하고, 개인연금 수령자가 된 해이기도 하다. 홍용환이 살아 있었다면 아버지 홍범도의 환갑(그리고 은퇴)를 기념한 사진을 함께 찍었지 않았을까?! 홍범도는 새 부인 이인복과 말년을 함께 하였으며, 이인복 또는 그녀의 후손 가운데 일부가 연해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글은 현재 참고할 수 있는 문헌 자료들을 비교·분석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홍범도의 부인과 두 아들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의 삶 역시 홍범도처럼 봉건적 억압과 신분적 차별 그리고 계급적 착취로 신음하던 이 땅의 민중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 짧은 글에서 밝혀진 사실만을 보더라도 홍범도의 부인 단양 이씨와 두 아들 홍양순과 홍용환은 우리의 항일독립운동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 애국자들이었다. 빈농 출신의 홍범도 일가야말로 독립운동 명가로서 내세워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

“독립군총사령관 홍범도 평전”



백송고 1학년 서은교 군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백송고등학교(교장 김성기)에서는 지난 7월 8일 교내에서 봉오동전투 전승100주년과 홍범도장군 유해봉환을 기념하여 2020년도 역사인물탐구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김상웅 저 “독립군총사령관 홍범도 평전” 독후감 쓰기 대회와 무장독립운동에 대한 박명구 선생(역사 교사)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독후감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1학년 서은교 군(사진)의 글을 소개합니다.

독립운동으로 민족의식 자각, ‘국민’ 탄생의 역사적 과정

이민족에 의해 국권을 빼앗기고, 자기 나라 땅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으면서 ‘민족’을 자각했던 것이다. 혼란의 와중에 이민족에 부화뇌동한 매국노들도 물론 있었지만,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여, 국가를 수립하여 국민이 되려는 열망을 가졌던 독립운동가들도 분명히 있었다.

‘국가’가 무너진 자리에 ‘민족’이란 단어를 당당하게 세우고자 분투한 그들은, ‘민족’이라는 개념에 우리의 정체를 채워 넣기 위해 ‘항일전쟁’이라는 험난한 사명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그러나 그들의 출발은 아직 ‘백성’의 신분이었다. 즉, ‘국민’으로서의 전망은 아직 요원했다. 주지하다시피 ‘국민’은 민족과 다른 개념이다. 국민은 국가가 있어야 한다. 더구나 왕조시대의 ‘백성’이 아니라 근대국가의 ‘국민’이 되려면, 주권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같은 ‘민족’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자각하는 문제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물론 기꺼이 조선 ‘백성’으로서 일본과 싸운 조선 유생들의 의병도 있었다. 그러나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꿈꾼 ‘국가’가 조선왕조의 회복만은 아니었다.

홍범도, 조선시대 차별받던 서부지방, 머슴집안에 태어났던, 이 소년이 무장항일군인으로 성장한 궤적을 따라가면서 그의 길이 ‘국민’ 탄생의 역사적 과정 속에 놓여 있음을 나는 발견했다. 그 과정은 눈부시게 아름다우면서도, 가슴시리게 처절한 슬픔의 길이였다. 그 길에서 자랑스럽게 빛나는 성취를 보았고, 원망스럽게 묻혀버린 실패를 보기도 했다. 그가 살다간 조선과 만주와 러시아에서, 나라 잃은 조선 백성 홍범도와, 만주 및 연해주 등지에서 항일투쟁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 홍범도와, 강제이주된 소련 국민인 극장 수위 홍범도를 모두 만날 수 있었다. 특히,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보여준 통쾌한 승리에서는 항일투쟁을 넘어, 새로운 ‘국가’를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겠다는 가능성에 설레였고, 동족상잔의 참변이 있었던 자유시 사건에서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남의 호의에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에 아픔을 느꼈다.

“항일전선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피를 뿌렸는데, 아직까지 살아남은 자신이 전공을 독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261쪽)”며 끝내 겸손했던 그 마음을 보면서, 리더로서 그의 마음가짐을 잘 알 수 있었다. 숲속을 지나는 사람은 정작 숲을 잘 보지 못한다. 우리가 단지 나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적 인물의 성취와 실패를 가볍게 판단하고 규정하는 일은 아무래도 마땅하지가 않다. 그의 역사적 궤적이 몇 점인지 점수를 주기 전에 우리는 우선 그와 그의 동료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독립된 국가의 민족적 시민으로서 민족의 번영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

항일무장투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 〈무장독립투쟁〉 1908 - 1919

공희정 작가

연해주를 근거지로 독립전쟁을 준비하다

길림에서 용환과 2명의 의병만을 남긴 채 나머지 동지들을 조선으로 돌려보낸 홍범도는 1909년 길림을 떠나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 무력항전이 유일한 무기였던 그는 그곳에서 무기와 탄약 구입 및 국내외 의병부대들과의 대규모 의병 항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하지만 안중근이 이끄는 의병부대가 국내 진입작전에 실패하면서 의병들의 사기는 꺾였고, 의병 활동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의병 부대들 간의 이견 조율도 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러일전쟁 패배 후 일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한인들을 적대시하여 어려움은 더해만 갔다. 그러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이토히로부미를 처단하면서 의병활동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전열을 정비한 홍범도는 1910년 4월경 30여명의 의병들과 함께 국내 진입작전을 개시했다. 간도를 거쳐 함경도 무산에서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했고, 갑산, 종성등지에서 일본군과의 전투를 이어갔다. 1910년 6월 연해주에서는 일본의 강제 병합을 저지하기 위해 국내외 의병 단일 지휘 체계인 '13도 의군'이 조직되었다. 대규모 항일무장투쟁으로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이 조직의 총재는 의병대장인 의암 유인석, 홍범도는 참모부 의원에 선출되었다. 활동 기간은 그리 길지 못했다. 두 달 뒤, 조국은 국권을 빼앗겼다. 아내와 아들을 잃고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온 그였지만, 이제 그는 나라 잃은 백성일 뿐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한인들은 '병탄 무효 선언서', 한인 사회 지도자 8,624명의 '서명록' 등을 작성하며 일본의 병탄 행위 반대 시위를 펼쳤다. 한인들의 날선 시위와 일본인 거류지역에 대한 습격이 이어지자 러시아는 한인 독립운동가 8명을 검거하여 이르쿠츠크로 추방하였다. 러시아의 체포령을 간신히 피한 홍범도는 인근 지역을 옮겨 다니며 군자금을 모았고, 의병활동을 지원했다. 1911년 6월부터는 블라디보스토크 한인 애국지사들이 조직한 '권업회', 청년들의 항일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회', 한인 노동자들로 조직된 '노동회'등에서 활동하며 후일의 거사를 준비하기도 했다. 또한 한민족 상고사 복원과 민족정신 보존을 위해 〈환단고기〉발행을 지원하였고, 단학회 발기인으로 단학회보 창간에도 관여하였다. 1912년 1월에는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이범석, 유상돈 등과 함께 '21인의 형제 동맹'을 맺었고, 블라디보스토크 '노인회'를 구성하여 회원이 되었고, '국민회 블라디보스토크 지방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 투쟁 전선을 강화해 나갔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 되어 독립전선으로 나간다

1914년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권업회를 비롯한 한인 독립운동 단체들을 해산시키자 홍범도는 1915년 9월 5일 새로운 의병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북만주 밀산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이 당시 홍범도가 가장 신경 쓴 것은 교육이었다. 소학교를 설립하여 아이들 교육 사업에 전념하는 한편 '우리 동무회'라는 청년단체를 조직하여 청년 교육을 활성화시켰다. 의병투쟁이 아니라 독립전쟁으로 국면을 전환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 홍범도에게 밀산에서의 시간은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1919년 3월 1일. '3.1만세운동'이 일어났다. 홍범도는 드디어 총을 들고 나설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이동휘를 중심으로 '조선인 군정부'가 조직되어 독립군 조직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군정부는 홍범도를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북간도에 가서 독립군을 지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홍범도가 106명의 의병을 이끌고 밀산을 떠난 것은 10월 1일, 두 달 뒤 그들은 북간도에 입성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대를 '대한독립군'이라 명명하였다. 이제 홍범도는 의병장에서 대한독립군 사령관이 되었다. 그가 대한독립군을 창건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무장 독립운동단체들도 빠르게 전열을 정비해 나갔다. 📖

홍범도 장군이 활동한 러시아 연해주



김경호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대구시 자문대사, 전 러시아 정부공사)

러시아는 인공위성을 최초로 쏘아 올린 과학기술 강국이자 문화예술 강국이다. 러시아인들은 매월 봉급의 일부를 가족들이 발레공연과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이 생활화된 민족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넓은 땅에 비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으로 이중 연해주에는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시 등이 소재해 있어 항일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지역이다.

러시아 한인사회는 1860년대 함경도 북부 거주민이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후부터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될 때까지 연해주를 비롯한 하바롭스크 등 시베리아 동남지역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생활근거지는 물론이고 항일독립운동 기지 역할을 하였다.

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 상실 이후 항일독립운동가들은 연해주 일대로 이주하였다. 독립운동가들은 러시아 당국의 협조를 얻어 이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각종 항일운동을 전개하였고 남부 연해주 지역에서는 최재형, 안중근, 홍범도 등의 의병부대가 북부 지방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면서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1937년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강제 이주되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는 홍범도, 계봉우 등 항일독립운동가를 비롯한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면서 독자적인 이주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연해주는 극동지역의 경제중심지로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마침 금년이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매우 의미있는 해이나 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금년 하반기로 대부분의 행사가 미루어진 실정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극동 시베리아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2012.5월), 매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함에 따라 우리도 최고위층이 매년 참석하면서 신북방경제정책을 통한 양국 간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신북방경제협력 프로젝트인 “나인(9)-브릿지”(조선, 향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_)를 통해 러시아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랄산맥을 중심으로 모스크바 방향 서쪽은 유럽, 블라디보스톡 방향 동쪽은 아시아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한반도의 78배)이다.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은 강제이주 출발지역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지만. 우리로서는 향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9,288km)-TKR(한반도 종단철도) 철도가 연결될 경우, 부산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으로 물류를 운송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연해주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즉, 남·북·러 철도연결사업, 가스관 연결 등 3각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러시아를 통해 통일 문제도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연해주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지역이자 러시아와 경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땅임에 따라 한번쯤은 방문하여 근대 역사도 배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을 다녀와서

김우진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케이잡스 대표)



7월 9일 독립기념관과 육군사관학교 공동주최로 육군사관학교에서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1920년 독립전쟁의 재조명’이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두 발자국 쯤 떨어져 있는 나에게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 활동은 태어나 걸음마 하는 것처럼 역사공부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대개 그렇듯 배움은 30여년 전 학창시절 수업이 전부이고 가끔 텔레비전 대하사극 드라마에서 접할 뿐이었다.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회원으로 활동 하면서는 역사관련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면 지나치지 않고 발길 멈추고 듣게 되고 텔레비전 채널도 멈추고 보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을 한번 다녀와 보라는 기념사업회 이사님들의 말씀을 가벼이 듣고 발걸음 가볍게 참석을 했다.

가볍게 참석했지만 학술심포지움을 다녀와서 몸살이 났다. 5~6시간 앉아 있는 게 뭐가 힘들까 했는데 5가지 주제의 발표자 발표는 외국어보다 더 어려웠다. 학창시절 국사책에서 시험을 위해 외우기만한 지식들은 하등 도움이 되지 못했다. 발표자들의 발표내용은, 내가 암기하고 공부한 역사는 100미터 긴줄에 점하나로도 찍힐 수 없을 정도로 짧은 단편이라 그 모든 내용을 5시간만에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몇 개의 단어만 알아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녹음까지 하면서 열중해 들었다.

첫 번째 발표문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신주백 소장의 ‘1920년 독립전쟁준비와 독립군의 전투’였다. 학자들이 독립군 전투의 실상을 밝히는 작업을 하면 어디서 어떤 일본군과 싸워 승리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홍범도, 김좌진 장군은 영웅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름없는 독립군에 대한 관심은 간단한 말잔치에 불과하고 이들보다 더 잊힌, 관심의 대상 자체도 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서두에 잠시 생각이 멈추어졌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영웅이 아닌 그 영웅을 싸울 수 있게 함께 해준 독립군, 그리고 그 독립군을 지원해준 이름모를 민초들 덕에 역사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를 각각 분리해서 기억 저편에 넣어둔 나에게 독립군이란 큰 주제를 이해하게 해주었고, 독립전쟁이란 큰 틀 안에서 독립전쟁을 무력투쟁과 평화적 투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문은 근현대사기념관 학예실장 심철기박사의 ‘1920년 독립전쟁 참여세력 분석 - 「의원안」에 나타난 의병세력의 성격」이었다. 1910년 전후에 러시아 연해주에서 작성된 의병명부 「의원안」 자료를 분석하여 의병과 독립군의 연속성에 관해 인적·지역적 분석을 통해 의병과 독립군의 활동을 분석했다. 1907년 대한제국 군대해산 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의병전쟁이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1908년 후반기부터 위축되어 만주에서 진행된 독립군 활동을 1910년 전후에

작성된 「의병안」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세 번째 발표문은 육군사관학교 이상훈교수의 ‘봉오동부근전투 상보」를 통해본 봉오동전투의 현장’이다. 역사의 지식이 없는 내가 가장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발표에 빠져든 시간이었다. 발표자는 우리의 역사기록이 아니라 일본군의 이동과 역사기록으로 봉오동전투를 재해석해 주었다. 일본군 월강추격대의 이동경로와 일본군이 우리 독립군에게 참패했던 패전경위에 대한 보고서인 「봉오동부근전투상보」를 근거로 봉오동전투를 재해석해주는 발표였다.

네 번째 발표문은 동북아역사재단 신호승연구위원의 ‘청산리戰役의 전개에 대한 군사적 재검토’다. 청산리 전역을 군사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간도출병을 일본 육군이 군사작전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 배경과 목적을 분석한 연구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발표는 육군사관 학교 김연욱교수의 「간도출병사」를 통해 본 ‘강안(江岸)수비대’의 실상이었다. 간도출병 이란 1920년 10월7일 일본정부의 공식 승인을 시작으로 1921년 5월 철수를 완료하기까지, 약 8개월간 간도 일대 독립군의 근거지를 말살하고 한인촌을 파괴하고 한인 수천 명을 학살한 일본군의 일련의 군사 행동을 일컫는다. 강안수비대 활동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간도초기 계획 입안단계, 실제투입 및 동원단계, 주력부대 철수 이후로 나누어 강안부대의 실태를 분석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일 때 나는 발표자의 발표문을 살펴보니 여러 참석자들처럼 고개를 끄덕일 시간은 없었다. 가볍게 생각하고 참석한 학술심포지움에서 내가 참석한 계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나부터 우리 역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후 토론을 들었다.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현충일, 광복절이 되면 묵념을 올리던 순국선열, 호국영령...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던 그들. 그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묵념 했는지 잠시 생각해보았다.

사회생활 하며, 행사 참석을 하고 당장 오늘 이 학술심포지움에서도 묵념을 하면서 나는 누구를 떠올렸는지 누구를 생각했는지...앞으로 내가 떠올려야 할 그 분들은 누구인지 말이다. 역사공부는 이렇게 걸음마처럼 순간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하면서 말이다. 의병활동, 독립군 여기에는 현재 나의 아들보다 어린 자식들도 있었고, 형제자매같은 오빠 언니, 동생들도 있었다. 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하면 나는 나의 아이들을 전장으로 내 보낼 수 있을까?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전선으로 달려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나의 일상에 조그만 변화를 가져올 학술심포지움 참관을 하고 내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챙겨보는 시간으로 이어진 뜻깊은 시간이었다. 📌

신임이사 인터뷰



박석봉 이사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9년에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을 마치고 전역한 박석봉입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수로서 군인의 사명감은 올바른 역사인식과 따뜻한 인간애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관생도들이 의병, 독립군, 광복군 정신을 이어 받은 조국의 간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8년 육사에서 학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장병들의 뜻을 모아 사격훈련 후 얻어진 탄피를 녹여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다섯 분의 독립영웅 흉상을 사관생도 강의실 정면에 건립했을 때 느꼈던 깊은 감명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항일무장투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인 봉오동, 청산리 대첩 100주년을 맞이하여 홍범도 장군의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리더십을 대한민국 군에서 계승발전시키는 일에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 민족과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의병, 독립군, 광복군 그리고 홍범도장군을 기억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일에 함께 하도록 기회를 주신 이사장님과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범도장군 <네이밍 디자인> 국민공모전

홍범도장군 관련 키워드를 기반으로 로고형식의 네이밍 및 장군서명 캘리 디자인 공모 - 2개분야

키워드 예 - 백두산 호랑이, 스나이퍼, 1920, 모신나강, 명사수, 대한독립군총사령관, 봉오동, 독립전쟁 등

공모기간 : 2020.8월~ 약 60일

○ 공모분야 <1> - 홍범도장군 네이밍 로고 디자인 부문

- 홍범도 장군을 의미하면서 연상할 수 있는 텍스트 및 로고 조합 형태의 네이밍 디자인

키워드 <스나이퍼> 적용 예시



키워드 <백두산 호랑이> 적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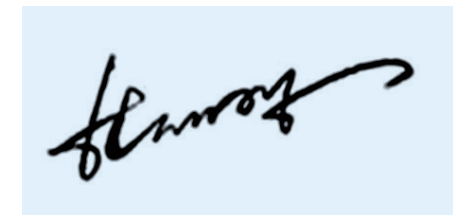
○ 공모분야 <2> - 홍범도장군 국민서명 캘리 디자인 부문

- 국민이 만들어 드리는 홍범도 장군의 서명 디자인 - 캘리 및 타이포 형식의 디자인

임팩트 있는 <한자> 스타일 예시



강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한글> 스타일 예시



문의 : 기념 사업회 김현식 사무국장 (010-2782-8151)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임원 년간 회비 임금현황 (2020년 1월~7월, 납부일 순)

정내하 김우진 홍성중 부윤경 홍이표 박대봉 임태성 홍성덕 김찬 김용환 유정배 우원식 김진형 이경철 황원섭 정광균 홍재구 김태원 김경호 강호형 홍순계 김수송 이종찬 안태호 오세중 한승관 김현정 문현군 이미자 박석봉

CMS회원 회비 임금현황 (2020년 7월 31일 현재 176명)

(사)한국마트협회 JIN CHUNXING 강도연 강미혜 강태영 강태희 고희오 구자룡 권재석 김거성 김경숙 김관표 김관석 김대영 김대한 김도식 김미선 김미자 김사엽 김상우 김선자 김성미 김성순 김성애 김성현 김신애 김양미 김영숙 김영진 김옥찬 김용경 김우진 김재구 김재영 김재현 김재형 김정식 김준수 김준영 김창환 김철순 김태원 김학필 김한백 나명현 나옥수 나홍섭 노용기 맹진규 문재남 민기식 민병훈 박국진 박규만 박기호 박도산 박선원 박인선 박점조 박조수 박준영 박지호 박태근 박현철 배규식 배영실 백장현 서경민 서민 서양원 석진경 석혜경 설정선 성은하 손여록 손현상 송다영 송정화 신선준 신승관 신완철 신재면 심상길 안상환 안선중 안영수 안영현 안태일 양미숙 엄기인 엄범용 여상연 여은석 오연근 우문식 유봉석 윤여각 이대호 이명수 이병국 이병룡 이성미 이수연 이순자 이승룡 이영란 이영숙 이영희 이우엽 이원규 이원정 이원형 이유창 이윤기 이은영 이은우 이정원 이주열 이주용 이준호 이지현 이자선 이진 이태준 이혜경 이행관 이현주 임현로 장승희 전광출 전성배 전준 전충선 전형범 전홍기 정동준 정두영 정병훈 정상섭 정성관 정윤미 정은숙 정인택 정중우 정중수 정지국 정현석 제성수 제육평 조국환 조봉현 조영욱 조영익 조영제 조진오 조현재 지매숙 지영순 지예은 지현주 천상영 최성우 최재호 최항수 하기호 한동진 한영우 한재원 허양순 홍영만 홍전표 홍정희 홍희령 황덕순 황선익 황중섭

임원명단

이사장	우원식(국회의원)	
명예이사장	이종찬(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건립위원회 위원장)	
부이사장	황원섭(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감사	박형상(변호사 / 전 서울중구청장)	
상임이사	홍순계(IBK연금보험 상근감사위원)	
사무총장	한동건((주)태백자원개발 대표이사)	
이사	김양진(BC카드 상임감사)	김진형((사)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 찬(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	김경호(대구광역시 자문대사/전 주러시아 대사관 정무공사)
	김수송((주)이음컴넷서비스 대표)	김우진(K잡스 대표이사)
	김용환(전 한남대 부총장)	김준목((사)혁신경제 이사장)
	김태원(NH 증권 부사장)	김현권(전 국회의원)
	김현정(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김형상(조이 세무회계 대표)
	남인순(국회의원)	노정래(주)건화 감리CM본부 사장
	류병균(평화전략연구소장)	문현군(한국노총부위원장)
	박대봉(한국비즈니스컨설팅사 주식회사)	박드미트리(P&TEC 농업조경법인 대표)
	정보현(노원 소상공인협의회 감사)	박완주(국회의원)
	부윤경(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석순용(특허법인 신세기 대표)
	손광춘(건축업)	손양호(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박물관 후원회장)
	안태호(한국전기감리협의회 부회장)	오세중(대한변리사회 회장)
	위성곤(국회의원)	유 용(서울시의원)
	유정배(대한석탄공사 사장)	이경철(노원구의회 의장)
	이명식(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이미자 (전 종로구의원)
	이승중(네무스텍 대표)	이재호 (한국리싸이클링 대표)
	임태성((재)서산복지재단 이사장)	정광균(주)미르나인 대표
	정내하((주)미네랄하우스대표)	정수진(하나카드 자문위원)
	제종길((사)도시·인·숲 이사장 / 17대 국회의원)	조태수(주)다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최 윤(E3플랜비 대표이사)	최익훈(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최재웅(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	한승관(대한변리사회 회원이사)
	한왕기(제40대 평창군수)	홍성덕(전 주독일한국대사관 공사)
	홍성중(남양홍씨 남양군파대종중회 회장/토금산업 회장)	홍의락(전 국회의원)
	홍이표(하이라빙 대표)	홍재구(당정사적보존회 회장)
	홍중표(강동수산 대표이사)	
신임이사	박석봉(육사 교수)	강호형((주)KC COTTRELL 감사)

후원안내 : 신한은행 100-027-188760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홈페이지 : www.hongbumdo.org
회원가입 : 김현식 사무국장(010-2782-8151)



회원가입